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0월 1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39-43절

설교제목 :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절은 일곱째 달 열닷셋날부터 이레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초막절은 한해의 결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39절)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출애굽기 34장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43절)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쑥콧이라고 합니다. 수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매년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을 만들고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초막을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는 천막이 아니라, 나무판자로 만든 나무장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비록 광야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그의 통치와 은혜를 통해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막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요1:14) 요1:14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를 직역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초막되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이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의 전제는 출애굽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기 이전에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43절)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명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주심에 초점이 있습니다.(요 7:37-38)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에는 4종류의 식물을 흔드는 예식이 있었습니다.(40절) 4종류의 식물을 **아르바 미넵**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이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입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두 가지 해석을 소개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의 해석은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인 레위기 미드라쉬에 보면 네 가지 식물이 네 종류의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나무실과의 특징은 한국의 모과 향과 비슷하고 맛도 있습니다. 즉 향도 있고 맛이 있는 식물입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인데 맛은 있지만 향기가 없는 식물입니다. 세 번째 무성한 가지의 특징은 향기는 있는데 맛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시내버들입니다. 이것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맛과 향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맛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이해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향은 선행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토라를 배우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종려나무는 토라를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무성한 가지는 토라를 배우지 않고도 그 뜻대로 실천하는 유대인인을 가리킵니다. 버드나무는 토라를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나는 어떤 식물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의 해석은 중세의 유명한 랍비인 마이모니데스의 해석입니다. 우선 종려나무는 광야 40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건너 기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요단 강을 건너 들어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열매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 따르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삶은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누리를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를 풍성한 삶과 같습니다. 그 풍성함의 본질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삶은 기쁨의 축제를 우리 표현으로 잔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구원받은 삶은 잔치입니다. 온전한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는 온전한 기쁨의 회복입니다. 초막절이 성취된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에덴을 누리며 살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초막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완전한 초막을 기대하며 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하십니까. 성경은 그 장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이 땅의 풍성한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에 도래할 영원한 장막은 더 이상의 이 땅의 장막에 거하는 삶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없습니다.(계 21:3-4) 더 나아가 그곳은 세상이 보석으로 꾸며진 곳과 같은 아름다운 곳입니다.(계 21:10-1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의 장막을 분양받은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영원한 장막이라면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장막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지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완성된 장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잠시 거할 장막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장막을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두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초막절에 네 가지 식물을 흔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초막절은 새언약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니까? 만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